발빠른 불교 대응, '긍정' 인식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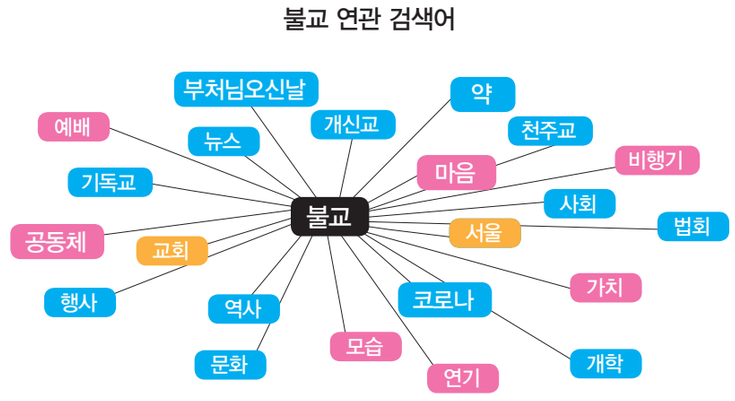
[분석]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와 불교'

종교 SNS 빅데이터 조사
긍정, 불교'66%' 개신교'23%'
'포교' 용어 부정평가 늘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가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서 '불교'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계의 부정평가 증가와 대비되는 가운데, '마음치유' '마음방역' '위로' 등 불교 전법과 관련된 행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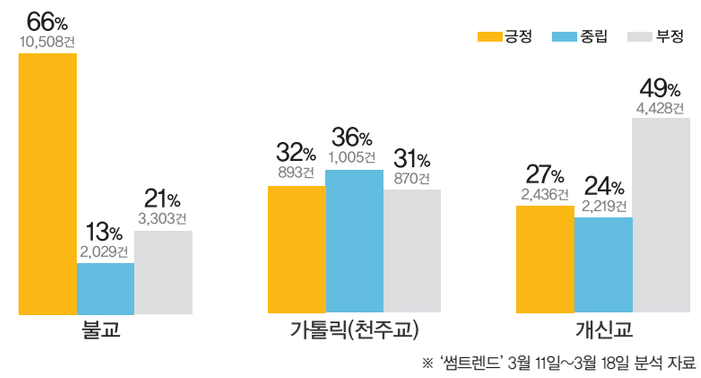
SNS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불교'에 관련된 긍정 인식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의 코로나 확산 시기, 발빠른 대처가 국민들의 불교인식 개선에 긍정 효과를 불어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3월 19일 썸트렌드 평판분석을 통해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1개월간 '불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SNS상 긍정의 글은 1만8741건으로 59%, 부정의 글은 7698건으로 24%였다. 조사기간을 좁혀 3월 11일부터의 1주일간 불교에 대한 인식은 긍정 66%, 부정 21%로 긍정적인 글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코로나 확산에도 예배 등을 강행한 '개신교'의 경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 '개신교'에 대한 인식은 1개월간 긍정 23%, 부정 56%로 부정적인 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간을 1주일로 좁히면 긍정 27%, 중립 24%, 부정 49%로 집회 중단 등 조치를 통해 조금씩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주교'의 경우 1개월간 긍정 34%, 중립 25%, 부정 41%였으며, 1주일은 긍정 32%, 중립 36%, 부정 3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찰'에 대한 인식은 긍정 43%, 부정 20%였으며 '스님'에 대한 인식은 긍정 61%, 부정 19%로 '교회'의 긍정 20%, 부정 48% 인식과 '목사'의 긍정 30%와 부정 41%에 비해 높은 긍정 인식을 보였다.

코로나 확산기간 동안 '불교'와 관련된 주요 연관검색어로는 '마음' '부처님오신날' '공동체' '가치' '약' 등이 높은 빈도로 검색됐다.

이와 함께 불교 전법에 대한 중요한 용어인 '포교'에 대한 인식은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 부정적 용어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포교'에 대한 평판 인식은 1개월간 긍정 15%, 부정 59%였으며, 1주일간 긍정 16%, 부정 41%였다. 또한 연관검색어로도 '신천지' '코로나' '위장' '수법' '사이비' 등 불교계가 가진 '포교' 용어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드러났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과 교수는 "불교계의 발빠른 대응이 주효했다. 특히 법회 중단 후 불교계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이어 교회 예배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부처님오신날 행사 연기 방침이 밝혀지며 효과를 본 듯하다"며 "앞으로 국민 템플스테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를 더욱 알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마음' '치유' '마음방역'과 같은 용어에 대한 검색빈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교수는 "사회적 격리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인과 우리 사회에 드리운 외로움, 불안감일 것"이라며 "불교가 가진 염불기도, 명상 등이 이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유와 상담 등에 기반한 활동을 더욱 늘려 향후 포교 기반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승가대학원 조건부 입학 허용

4급승가고시 접수자 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찰 승가대학원과 염불교육 진행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입학 전형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6일 예정됐던 4급 승가고시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과 염불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에 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이는 4급 승가고시 이후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수지하게 되는 구족계를 고시 연기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4급승가고시 응시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사찰 승가대학원과 특수교육기관의 입학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시행되는 4급승가고시에 불합격하거나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된다. 한편, 조계종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은 전국 19개가 있으며, 특수교육기관(염불교육)은 4개가 운영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학구열'

동국대 경주캠 비대면 온라인 강의
직접 동영상 강의 제작키도
실시간 강의… 편의 · 질 높여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 강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코로나19로 개강을 2주 연기한 이후 개강한 3월 16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향후 3주간 진행된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로 이뤄진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교수, 학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했다.

온라인 강의 전용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과 FAQ, QnA 게시판을 운영하고, 밤 9시까지 헬프 데스크를 가동해 상담 전화를 열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우수 사례를 교수들에게 공유했다.

3월 16일 오전 9시 첫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 주수언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는 "수업마다 학생들과 지난 주 3일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클래스에서 온라인강의를 연결해서 실제 수업과 똑같이 출결이 이뤄지고, 아이피주소나 학습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수업 운영이 실제 현장 강의와 같이 공정하게 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수언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가 3월 16일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호응도 긍정적이다. 같은 날 강원도에 거주하는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들은 김원희(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은 "이클래스에서 강의를 보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교수님께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바로바로 받으면서 실제 수업하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영상 강의를 직접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1인 강의 제작도구를 직접 사용해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 학내 이클래스에 올린다.

이영찬 교수는 "실시간 강의와 달리 완성도 높은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면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내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대학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명상 대가, 선승들의 결집
〈禪僧〉

3월 12일 참선지도자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

참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참선명상 보급에 앞장 서 온 한국참선지도자협회(협회장 각산)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활동 전개를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하 참선협회)는 국내 유일 국가등록 '참선지도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참불선원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서는 참선지도자협회를 이끌어온 각산 스님의 발의로, 전국선원수좌회 상임 대표 의정 스님이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협회장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 의장은 선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연수원장은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교육원장은 금강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회장), 간화선 연구원장은 정과 스님(대승사선원 한주), 경영위원장 이용태 변호사(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를 등기 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

참선지도자협회는 선승과 각 단체의 참선 명상지도자가 모여 1700년 '참선(參禪)'의 대중화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등불을 밝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출범했다.

참선지도자협회의 구성은 간화선 대종사인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 보광 스님(해인사 희랑대 조실), 혜국 스님(석종사 조실), 혜거 스님(금강선원 조실), 일오 스님(내소사 선덕), 정찬 스님(대흥사 유나), 영진 스님(백담사 유나) 등 원로 선승을 모시고 청안 스님(형가리 원광사 주지), 종묵 스님(수도암 선현), 담마끼티 스님, 전현수 정신건강전문의, 김열권 원장(위빠사나 붓다선원장), 킴킴(마이크로소프트 명상가) 등 명상마스터와 28개 수행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의정 스님은 "참선지도자협회를 중심으로, 간화선이 명상과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불교가 세계화되어 인류중생들을 이끌어 가려면 참선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선지도자협회는 '2018 DMZ 세계평화명상대전'과 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 등을 통해 한국대표 참선명상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왔다. (02)451-0203

노덕현 기자



붓다가 최초로 발견한 명상의 본래 모습,
사마타(定)와 위빠사나(觀)의 세계!

이제, '명상은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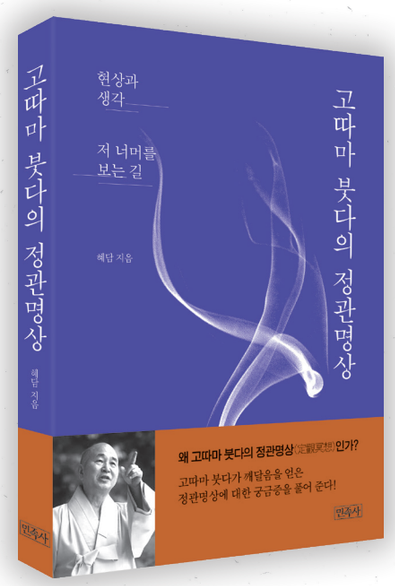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

혜담 스님 지음 | 254쪽 | 값 13,800원

삶의 근본적 변화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자 명상!
누구나 명상으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처방전!

우리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수행은 출가 수행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요즈음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명상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명상이 '명상은 수행이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머리말 중에서



혜담 스님 | 부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 역임.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新 반야심경 강의》《방거사 어록 강설》《행복을 창조하는 기도》《진리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민족사 40년 전통, 불서 출판의 명가 www.minjoksa.org 02)732-2403~4